

병아리 질병 해부(1)

어린 병아리는 스스로 조절능력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온도, 습도, 환기, 급이 및 급수 등 적응력을 갖추 때까지는 인위적으로 세심히 배려해야 한다. 면역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포유류와 다르게 난황이라는 물질을 달고 태어난다. 포유류로 비교하면 초유와 같은 역할을 한다. 포유류는 어미 젖을 통해 다량의 항체를 받아 환경에 적응하여 이겨나가기만 병아리는 난황을 통해 항체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초기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면역물질을 받을 수 있는 장의 구조는 초기 3~4일 이내이다. 그 이후는 장의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초기관리에 실패할 경우에는 난황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병아리가 약해지고 질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대사촉진제라 불리는 약제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다. 이 약제들의 일부는 난황흡수에 상당히 효과적인 작용을 갖고 있다. 또한 음수량을 두드러지게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정상적으로 난황흡수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간은 96시간 이내가 좋다. 그 이후에도 장 내에 난황이 많이 남아있다면 질병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김 찬 기
네오바이오(주) C/S사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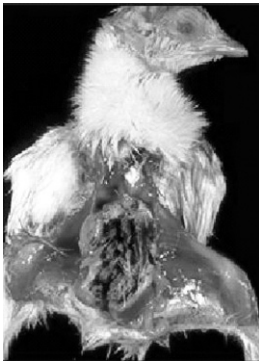
다음은 병아리의 초기 폐사원인 및 병아리에서 올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술하고 있다.

❖ 초기 폐사의 원인

- ① 관리상의 문제
- ② 전염성 질병

▶ 관리상의 문제 (사진 1 참조)

- 추위스트레스 또는 너무 덥게 해주었을 때
- 기아 & 탈수 (후기에 호흡기 질병과 관련)
- 깔짚을 섭취



〈사진 1〉 관리상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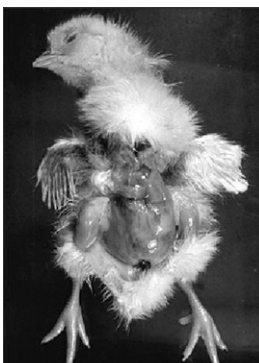
- 부적절한 관리
- 부주의
- 곰팡이 독소

▶ **질병요인**

- 제대염
- 아스퍼질러스증 (진균성 질병)
- 신경계 이상
- 근골격계 이상

1. 제대염 (사진 2 참조)

- “배꼽병”이라고도 하며 신생 병아리의 급성



〈사진 2〉 제대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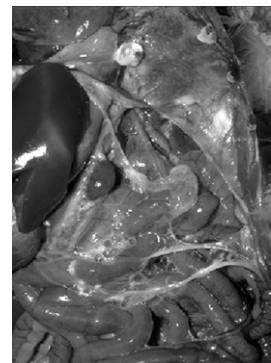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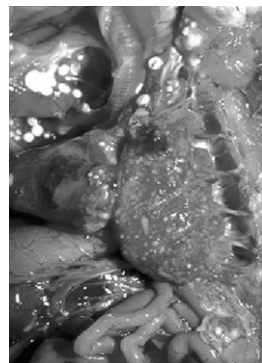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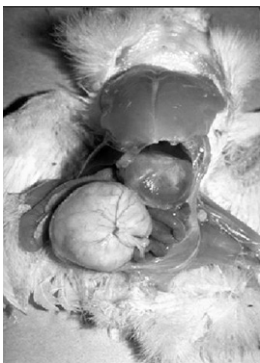


전염성 질병

- 배꼽에 염증, 난황에 감염, 부종 발생
- 감염경로: 종계장이나 부화장 종란의 난황에 세균 분변 오염(E. Coli, Pseudomonas, Salmonella, Proteus spp...) → 난황막에 세균 침투 → 난황 감염
- 폐사율 : 1~3%, 심한 경우 10~15%
- 임상증상 : 약추 발생이 많음, 노란 빛깔이 옅음, 복부 팽창, 습한 배꼽 염증 소견, 난황 흡수가 안됨
- 진단 : 임상증상과 병변관찰, 세균에 대한 난황배양
- 예방 : 특별한 치료법이 없으므로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함. 부화장 선택을 잘해야 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청소와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함

2. 아스퍼질러스증(진균성 질병) (사진 3 참조)

- 곰팡이 감염이 원인
- 호흡기 증상이 특징적이며 폐와 기낭에 노란 염증성 물질 침착
- 많은 타입의 조류에 감수성 있음(닭, 칠면조, 애완조류, 야생조류 등)



〈사진 3〉 아스퍼질러스증(진균성 질병)

- 급성 : 어린 병아리- 높은 이병을 및 폐사율이 특징
- 임상증상 : 호흡곤란, 헐떡거림, 호흡수 증가, 설사, 중추신경계 이상(마비증상, 진전 등), 결막염, 기아, 쇠약
- 부검소견 : 폐- 희거나 노란 결절, 기낭과 기관, 복강, 간 및 다른 부위에 염증물, 간혹 뇌와 결막에서도 관찰
- 치료보다는 예방이 우선, 급수기 및 급이기, 사료, 깔짚 등 철저한 관리가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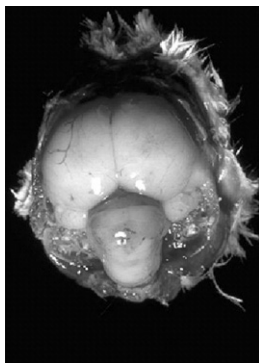


〈사진 5〉 뇌척수염

3. 신경계 이상

① 뇌연화증 (사진 4 참조)

- 운동실조(머리가 뒤쪽이나 아래쪽으로 수축)
- 때때로 머리가 뒤틀리는 증상, 보행이상
- 다리가 풀리거나 빠른 진전증상(가늘게 떨림)
- 대개 15~30일령 사이 발생이 많음
- 비타민 E결핍이 주원인(사료내)
- 일반적으로 사료내에 정상적으로 함유되지 만 보관기간이 길었거나 좋지 못한 환경(고온시)에서 파괴될 수 있음
- 소뇌가 종창되거나 출혈, 연화됨, 연수의 부종이 관찰됨



〈사진 4〉 뇌연화증

- 사료에 항산화제(BHT, Santoquin) 및 비타민 E첨가로 치료

② 뇌척수염 (사진 5 참조)

- 특히 머리와 목부위의 진전증상이 특징
- 운동실조와 마비증상 관찰
- 성계 : 감염증상은 관찰되지 않으나 산란율 감소(보통 7~25%), 계란 크기가 약간 감소, 일부 계균이 침윤한 증상
- 바이러스성 질병(enterovirus)
- 감염경로 : 수직전파(계란 전파), 수평전파(감염된 병아리와 직접 접촉에 의한 감염, 바이러스는 분변에서 4주동안 생존 가능하므로 오염된 사료, 물, 기구를 통해 계균에 전파)
- 극소수는 감염후 회복됨 - 감염후 6~8주간 시력장애를 보이는 닭이 관찰될 수 있음
- 진단: 임상증상 및 발병 이력 참조, 부검 소견은 없음, 조직병리학적 검사, 바이러스 분리가 가장 확실함. ...〉 다음호에 계속 **양계**